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5~4/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예수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4	인생수업(잘물든단풍은봄꽃보다아름답다)	법륜/유근택 그림	휴
5	입중론강해	월칭 조송,법존 역강	운주사
6	불교적심신의학과생명윤리	김성철	오타쿠
7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원측의소에의한해심밀경	김윤수 역주	한산암
9	수심결과마음공부	법상	불광출판사
10	티벳스승들에게깨달음의길을묻는다면/증보판*양장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중국불교철학 신호탄…〈조론〉 주석 최초 완역



조론오가해 전 6권
장경각 펴냄
조병활 역/총 30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반야 중관사상 요체 담은 승조 스님 논서

후진시대(384-417)를 살았던 승조(僧肇, 384~414) 스님이 반야 · 중관사상의 요체를 설명 하고자 〈반야무지론〉 〈부진공론〉 〈물불천론〉 〈열반무명론〉 등을 지었고, 그 이후의 어느 때 사람들이 이 글들과 동진(東晉, 317~420)의 유유민(劉遺民, ?~410) 거사가 쓴 〈유유민 거사의 질문 편지〉와 이에 대해 승조 스님이 답한 〈승조 스님의 답변편지〉 등을 묶어 편찬한 책이 바로 〈조론〉이다. 승조 스님의 이름인 '조(肇)' 자와 이치를 논의한 글이라는 의미의 '논(論)' 자를 결합해 〈조론〉이라 불렀다. 승조 스님이 지은 논문의 묶음이라는 뜻이다. 1061년 찬술된 〈조론집해령모초〉에 "당나라(618~907)부터 북송 때까지 출간된 〈조론〉 주석서는 20여 종이나 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조론〉은 주목받는 중요한 저서였다. 현존하는 〈조론〉 주석서들 가운데 남조 진나라(557~589)의 혜달 스님이 지은 〈조론소〉 3권(하권 결락), 당나라(618~907)의 원강 스님이 627~649년 찬술한 〈조론소〉 3권, 북송(960~1127)의 비사(994~1056) 스님이 1053년 강술한 내용을 토대로 북송의 정원(1011~1088) 스님이 1058년 집해한 〈조론중오집해〉 3권, 원나라(1271~1368)의 문재(1241~1302) 스님이 저술한 〈조론신소〉 3권, 명나라(1368~1644)의 감산 덕청(1546~1623) 스님이 1616년 짓고 1617년 출간한 〈조론략주〉 6권 등 각 시대를 대표한 다섯 부의 책을 선택해 역주한 것이 바로 〈조론오가해〉이다. 책 이름도 각 시대를 대표한 다섯 스님이 주석한 책들을 모았다는 의미에서 〈오가해〉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론오가해〉 가운데 〈조론략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됐다. 일본어나 영어 그리고 현대 중국어로도 옮겨진 적이 없다. 여기에 〈조론〉을 연구 분석하고 〈조론〉 본문을 주해한 내용을 담은 〈조론연구〉를 보탠 것이 전 6권 1질의 〈조론선집〉이다.

인도불교 중관파의 개조 용수(대략 150~250) 논사와 서역 구자국 출신의 명승 구마라집(鳩摩羅什, 343~413) 스님의 반야 · 중관사상을 계승한 승조 스님은 이 〈조론〉으로 삼론종 개창에 사상적인 길을 제공했고, 인도와 중국사상의 교류 및 범어와 중국어 회통에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조론〉은 중국 사상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재론적인 노장 철학의 무유개념으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며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진행한 위진현학의 물줄기를 성공을 통해 공 · 유를 탐구하는 수당불학으로 돌리는 인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 활동한 운서주굉(1535~1615), 자백진가(1543~1603), 감산덕청(1546~1623), 우익지욱(1599~1655) 등 4대 고승 가운데 한 명인 우익지욱 스님은 각종 경전과 논서들을 열람하고 지은 〈열장지진〉에서 "중국서 찬술된 저서 가운데 승조 스님, 남악혜사 스님, 천태지의 스님 등의 것이 유일하게 순일하고 순일하다. 진실로 인도의 마명 논사, 용수 논사, 무착 논사, 세친 논사 등의 저술에 비해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대승종론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여러 스님들의 저작들은 순일한 맛은 있으나 흠이 있기에 다만 잡장에 넣었다."며 승조 스님을 인도의 마명 · 용수 논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로 기록했다. 중국의 정사와 이십사사 가운데 종교 관련 기록이 있는 〈위서〉 권114 〈지제 20 · 석노지〉에도 구마라집 스님과 승조 스님을 높이 평가한 기록이 있다.

역사서가 출가자에게 이처럼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중국불교사에서 승조 스님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조론선집〉의 주요 특징은?

이 번에 출간된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각 권들의 여러 판본들을 비교 · 교감했고, 표점을 모두 찍었으며, 이를 토대로 역주했다. 주석서들이 탄생된 그 시대의 불교적 · 정치적 ·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 〈해제〉를 각 권 앞부분에 붙여 놓은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각주를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저자는 〈조론〉 본문과 주석서에 있는 내외전 인용문들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했으며, 제 1권 〈조론연구〉에 수록된 〈공사상, 현학 그리고 조론〉이라는 글과 〈조론오가해〉 각 책 앞부분에 있는 해제를 함께 읽으면 중국 불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 사업 일환 출간
> 다수 주석중 각 시대 대표한 5종 주석서에 대한 역주
> 교감 표점 등 작업 거쳐 풍부하고 상세한 각주 주목
> 각 책 〈해제〉 함께 읽으면 중국불교 흐름 파악 가능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우리나라 불교계도 〈조론〉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삼국유사〉 권제4 〈의해 편 '이혜동진' 조에 〈조론〉이 등장한다. "혜공 스님이 일찍이 〈조론〉을 보고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 고 말했다. 혜공 스님이 승조 스님의 후신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원효(元曉, 617~686) 스님이 찬술한 〈금강삼매경론〉 권하 〈총지품 제8〉에는 〈부진공론〉의 마지막 구절, 즉 "승조 스님이 말한 것과 같다. '그러면 깨달음은 멀리 있는가? 사물의 본성을 체득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성스러움은 멀리 있는가? 중도를 체험하는 그것이 곧 신령스러움이다.' "는 구절이 인용돼 있다. 〈조론〉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 또 다른 문헌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스님의 문집이다. 의천 스님은 1085년 5월 각종 불교서적을 구하고 화엄종 · 천태종 교학연찬을 위해 송나라에 들어갔다가 1086년 6월 귀국한 적이 있다. 당시 의천 스님은 송나라 화엄학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항주의 진수정원(晉水淨源. 1011~1088) 스님에게 화엄교학에 관해 물었다. 귀국한 의천 스님은 정원 스님과 여러 번 편지를 교환했다. 이 글들이 〈대각국사문집〉과 〈대각국사외집〉에 남아 전한다. 그래서인지 의천 스님이 1090년 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전3권. 1,010부 4,857권 수록) 권 제3에 정원 스님이 펴낸 세 권의 〈조론〉 주석서를 포함해 적지 않은 〈조론〉 주석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 주석서들이다. 이처럼 〈금강삼매경론〉 〈대각국사문집〉 〈신편제종교장총록〉 〈삼국유사〉 등에 〈조론〉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신라시대 이래 해동의 불교인들도 이 책을 적지 않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조론〉 읽기 연구의 부수적 효과

〈조론〉 읽기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조론〉은 중국의 자생적인 사유체계인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았을까' 가 하나이다. 한국 · 중국 · 일본의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에 동의한다. '〈조론〉이 불교중국화의 출발점이 되는 저작인지' 가 다른 하나이다. 중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주장을 편다. 그들의 주장은 정확한 분석에 기반을 둔 것인가? 〈조론〉을 읽어가며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삼국시대부터 십육국시대까지의 정치적인 상황, 사상적인 변천, 불교사적인 변화 등을 차례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상도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 시대와 동시대의 정치적 · 사상적 · 문화적 함의 속에서 탄생 · 성장 ·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론〉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초기 중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당시의 중국사상을 역동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 초기 중국불교도들이 인도불교사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여 중국인 자신들의 사상으로 변화시켜 나갔는지를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세 번째는 초기 중국불교의 변천과 그 궤적에 대한 연구는 중국사상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불교와 유교 · 도교가 서로 습합되는 과정, 명대 이후 중국불교의 변용 등을 천착할 때 초기 중국불교, 특히 〈조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네 번째, 각 시대별로 나타난 〈조론〉 주석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 시기의 중국인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중국사상사에서 불교의 위치를 어디쯤 설정했는지를 문헌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조론〉과 주석서 및 이와 관련된 사상의 흐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중국불교사상의 역동적인 변화는 물론 20세기 이후 중국사상의 변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모델 ·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론선집〉의 각권 내용 소개

마지막으로 각 권의 내용을 소개한다. △**제1권 〈조론연구〉**=중국불교 토대를 다진 〈조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역주한 책이다. '연구 편' 과 '역주 편' 으로 구성됐으며, '연구 편' 에는 〈조론〉을 연구한 논문들이, '역주 편' 에는 〈조론〉 본문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각각 들어있다.

△**제2권 〈조론소〉**=〈조론오가해 1〉 진나라 혜달 스님이 찬술한 현존 최고의 조론 주석서이다 오래된 책이라 문장도 어렵고 필사과정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뒤섞인 단락' 도 있다. 위진남북조시대(220~589)의 중국불교에 나타난 열반학파 성실학파 섭론학파 지론학파 등과 관련된 내용이 곳곳에 기록돼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불교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으로 평가된다.

△**제3권 〈조론소〉**=〈조론오가해 2〉 당나라 원강 스님이 삼론학 입장에서 저술한 책으로 〈조론〉에 대한 현존 최고의 주석서로 평가된다. 중국 고전과 훈고학 서적 등에서 인용한 내용과 불교의 경전과 논서의 내용을 인용해 설명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 책에 인용된 문헌 가운데에는 현존하지 않는 책들도 있다. △**제4권 〈조론중오집해〉**=〈조론오가해 3〉 북송의 비사 스님이 강설하고 정원 스님이 집해한 송대를 대표한 조론 주석서이다. 분량은 혜달 스님의 〈조론소〉나 원강 스님의 〈조론소〉에 비해 적은 편이나 압축된 설명이 특히 돋보이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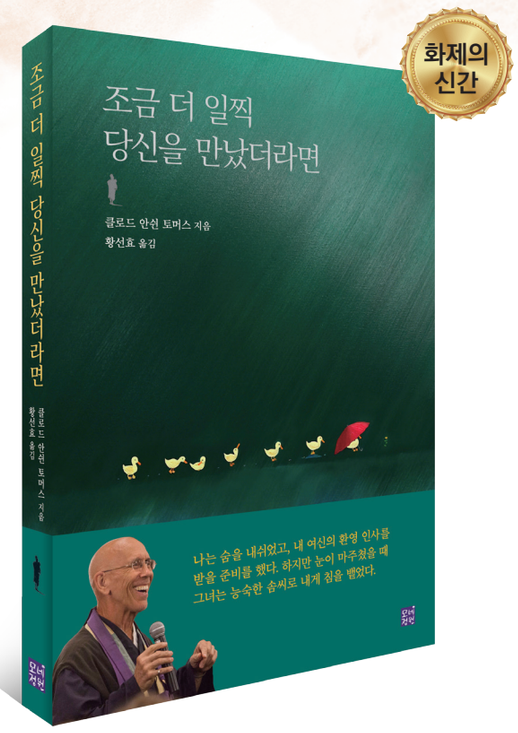
△**제5권 〈조론신소〉**=〈조론오가해 4〉 원나라 문재 스님이 기술한 원대를 대표하는 〈조론〉 주석서이다. 방대한 내전과 교리에 근거해 〈조론〉을 풀어낸 솜씨가 탁월하다. 훌륭한 책이기에 '상당한 인내심' 과 '정교한 사고력' 을 갖고 도전해야 된다. 역주자는 다섯 권의 주석서 가운데 굳이 한 권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제6권 〈조론략주〉**=〈조론오가해 5〉 감산 스님이 본인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찬술한 책으로 명대를 대표하는 조론 주석서이다. 간략한 말 속에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조론〉을 보다 쉽게 설명한 점도 돋보인다.

▲역자 **조병활**은?



불교학자. 중국 북경대 철학과 졸업. 북송 선학사상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 취득. 중국 중앙민족대 티벳학연구원에서 티베트불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성철사상연구원장 등 역임. 주요 논문으로 〈혜홍의 문자선 사상 연구〉(중국어, 북경대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고, 저서로 〈불교미술 기행〉 〈다르마로드〉(상, 하) 등이 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